

# 전통시장 · 골목상권 문화행사 '풍성'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70호 공급

전주시, 2024년 하반기 착공... 2026년까지 입주 목표 추진

모래내시장 · 신중양시장 · 서부시장서 가막축제 등 다양한 행사 개최... 동네슈퍼 공동세일전도 진행

전주모래내시장과 신중양시장, 서부시장 등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전주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와 각종 문화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전주모래내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6회 모래내시장 차맥&가막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틀간 전주모

래내시장에서는 수제 맥주와 더불어 맛있는 치킨이 판매되고, 상인 및 고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과 EDM 파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주신중양시장에서는 퓨전국악과 아코디언, 사물놀이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제11회 신중양시장 한사발막걸리축제'가 열린다.

또한, 서부시장에서도 9월 1일과 2일 이틀간 인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The~ 좋은밤에 문화가막축

제'가 펼쳐진다. 이 행사는 인근 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준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 154개 동네슈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을 열고, 동네슈퍼에서 가장 잘 판매되는 라면과 참치, 커피, 세제 등 30여 개 상품을 2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주지역 7개 골목상권에서 코로나19의

여파와 고물가·소비위축으로 붕괴 우려에 있는 골목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제3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침체된 골목상권·전통시장이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는 데 이번 축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지쳐있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위로와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7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창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시설을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결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7억 원 등 약 168억 원을 투입해 팔복동 일원에 오는 2026년까지 창업 지원주택 24호와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46호 등 총 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대상지로 전주시(70호)를 비롯해 서울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호)을 선정했다.

사업방식은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공동 공공주택사업자 방식으로, 전주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설계·시공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되며,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시공하면 시가 공사를 지급하고 관리를 맡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범위로 저렴하게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및 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들 전주서 격돌

전주 BWF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9월 11~17일 개최  
43개국 3000여명 10개 부문 5개 종목 참여

43개국 3000여 명의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들이 전주에서 격돌한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화산체육관과 덕진배드민턴장에서 '2023 전주 BWF 월드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배드민턴 종목의 최고등급 시니어 대회인 이 대회는 지난 201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 터키 앙카라, 2015년 스웨덴 헬싱보리, 2016년 인도 케랄라 코친, 2019년 폴란드 카토비체, 2021년 스페인 우엘바 등 2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10개 부문 5개 종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문의 경우 최소 연령인 35세 이상부터 80세 이상까지 5세 단위로 나뉘며, 종목은 남성 단식과 복식, 여성 단식과 복

식, 혼성 복식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대한배드민턴협회 주도로 진행된 대회 참가자 모집 결과,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43개국 3000여 명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번 대회가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오는 26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제33회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현장에서 전국 각 지역 배드민턴협회 등과 함께 시니어대회 협력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2023 전주 BWF 월드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공식 포스터

## '전주시 사회적경제 시민장터' 개최

26일 덕진공원서 개장... 10월까지 매월 격주 토요일 진행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한 착한 경제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시민장터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6일 덕진공원 천년의 길에서 '2023 전주시 사회적경제 시민장터' (이하 시민장터)의 첫 번째 장터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시민장터'는 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열리게 된 것으로, 전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 공공기관 등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 이홍락)의 주최로 펼쳐진다.



여기에 △풍물놀이, 사물놀이(8월) △퓨전국악, 장구 공연 및 제기차기, 인형극(9월) △타악퍼포먼스, 어린이 뮤지컬(10월) 등 매월 특색 있는 행사도 마련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문화·예술공연, 지역행사 등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다.

삼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시민장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민들에게 사회적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실종위험 노인에게 배회감지기 보급

전주시, 재가 노인 800여명 대상 신속 발견·복귀 위해 무상 배부

전주시가 치매 환자 등 실종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올해 실종 예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배회 또는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위험이 있는 재가 노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환자의 소지품 등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하고, 가족 등 보호자가 모바일 전용 어플에 스마트태그를 등록해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이다. 옷이나 신발 등에 부착하거나 소지품

에 고리 형태로 걸어서 사용하여 분실 위험이 적고 건전지 교체 시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협약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95개소를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배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향후 순차적으로 기관으로부터 치매 환자 및 참여 노인의 명단을 추천받아 배회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일부는 개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 환자 실종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실



전주시가 치매 환자 등 실종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23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협약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95개소를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배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종 치매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 환자와 어르신들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이번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 외에도 실종 예방 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등록제 안내 등 다양한 실종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